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위기 시대’ 우리의 관심

영 분야 단행본 도서가 41년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독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투자·재테크 분야 도서와 주식·증권 분야 도서 판매가 크게 증가되면서 도서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좀 더 비약을 하자면 국민 대다수가 주식 열풍에 휩싸이면서, 이제 주식을 안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상식이 되고, 어린 돌쟁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사회가 되었다. 시장이 부추기는 위기 의식과 경쟁 의식에 휩쓸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감은 이제 모두가 함께 앓게 된 또 다른 전염병이 된 것이다.

인정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근면함으로, 과거 어려웠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을 보다 빨리 개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우리 삶의 최대 관심이 돈이 되어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분별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위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팬데믹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감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요즘 나는 살던 동네에서 잠시 멀리 나와 독일을 찾았다. 아파트 하나 없는 중상가와 주택가를 걸으며 도시 전체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데 새삼 놀라고 있다. 오래된 건물의 위계층 벽 때문에 인터넷 연결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 이 추운 겨울에도 기어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아

졌다. 딱딱딱 딱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길을 나서기 전부터 노선 시간표를 미리 챙겨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 곳 삶의 불편함은 예전과 변함없이 없었다.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가게 주인은 변한 것 없는 가게에서 딱 20년만큼 더 늙어 있었고,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손님을 맞았다. 그렇다고 이곳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만 있다는 건 아니다. 이들이 돈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와 다른 곳에서 사는 이들과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떠안고 다가오는 미래에 불안해 한다. 다만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들의 관심사로 빛어낸 삶의 그림은 우리의 일상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가는 곳마다 마주친 독일 사람들이 전보다 더 친절하게 느껴져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물어 보았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나?” “네.” 위기의 시대,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격정 없는 미래란 없다. 힘으로 거의 4년차를 보내고 있는 이놈의 역병으로 곳곳에 걸려진 마스크를 환승간도 마음 놓고 떼낼 수 없었던 올 한해가 저물어 간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서 또 다른 한 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퀸의 노래 제목(“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해야 한다)처럼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2021년, 모두가 더 애쓰고 수고한 한 해를 보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 비록 위기는 여전히하지만 나의 일상을 지탱해 줄 관심거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社說

‘여권 대통합’ 정권 재창출 청신호 켜지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신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 이후 집행을 거듭한 지 51일 만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엇그제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아같이 합의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방안, 양극화 완화 및 복지국가 구현, 정치 개혁, 국민 통합 등을 주요 어젠다로 삼아 차기 정부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전격 회동하면서 양측이 경선 과정의 양극을 견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후보 확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내홍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집행을 멈추고 조속히 등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결단으로 ‘원팀’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민주당은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호남이 기반인 이 전 대표가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한 반면 호남 표심 결집으로 지지율 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민주당부수립 과정에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수도권 등 전국 지지층을 결집해 대세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어제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추진해 온 ‘여권 대통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여권의 결집이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과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별사면 유감스럽지만 국민통합 계기로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씨 특별 사면에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지적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사면한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였다든 주장도 나온다. 양측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박 씨는 국정 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4년9개월을 복역했다. 반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씨의 2년여에 비하면 월등히 길다.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보 진영에선 ‘춧불 정신의 배

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장기 수감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사면을 반대하는 성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사과 한마디 없이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만기출소를 불과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말 한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됐다”며 형평성을 제기했다. 그러가 하면 이번 사면에 이명박 씨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보수 분열 책략’이라며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어찌 됐든 박 씨는 이제 형사 사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엄정한 역사적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어렵게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꿈꾸는 2040



임용철
위민연구원 이사·다규 감독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이금주’

보다 고통과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할머니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고회를 앞둔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30년 넘게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걸음 걸여간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본인의 집 2층에 사무실 겸 사랑방을 만들어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일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보듬고, 해남이든 완도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곳곳을 다니며 광주유족회 산하에 47개 지부를 만들고,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규합했다.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 1000인 소송’을 시작으로,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원고로 참여한 관부 재판 소송, B·C급 포로 감시원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등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7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금주 회장이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는 번번이 패소했지만 ‘관부 재판’과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소송은 1심에서는 승소를 거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기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기에 일본에서 소송을 돕고 있는 지원 단체 관계자나 변호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원고들로부터 받아 정리해 다시 일본에 보내는 일부터 참여명 명을 넘는 회원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도 광주유족회 일을 같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 회장과 피해자들의 절기찬 투쟁 끝에 마침내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편견을 들으며 한일 정부와 싸웠지만 2011년 아끼던 며느리에 이어 아들마저 연달아 먼저 보내면서 사무실로 쓰던 허름한 집 한 채마저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2012년 5월 광주 생활을 청산하고 손녀가 있는 순천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익숙한 생활 터전을 떠나 건강마저 쇠약해지면서 9년여 동안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오셨다. 그나마 100세 되던 201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일제 피해자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병상에서 받은 것이 위로의 전부였다.

할머니의 못다 이룬 한은 이제 후세들에게 남겨졌다. 고인의 피와 맘의 결집인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의 각종 피해 사실 및 소송 자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에 임시 보관되어 있다. 할머니의 마지막까지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곧 방송국에서 방영될 예정인데, 생전 이금주 회장님의 치열함이 묻어나는 자료들을 보면 다시 한번 고인의 삶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가 해결되어 아직도 못다 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한이 풀여지길 기대한다.

기 고

로컬의 자생적 미래

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과 지역을 연결하며, 크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며, 도시 재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책에는 그저 낯선 지역을 찾아가던 청년들부터,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성공하려는 청년들, 서울 생활에 지쳐 로컬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청년들, 그리고 여럿이 뜻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화와 지역 커뮤니티 조성에 성공한 청년들을 다룬다. 저자들은 로컬 지향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의 시작으로 그들은 보지 않는다. 가슴에는 애정을 담았지만, 앞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그들의 미래까지 걱정 하고 있다.

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 균형 발전’ 정책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청년들의 자생적 노력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다. 부끄럽게도 80대 장모님조차 애용하시는 ‘로컬 푸드’라는 이름도,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소상공인)라는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1913송정역시장’이라는 관광과 창업을 겸한 특화 사업, ‘무등산 브루어리’ 같은 청년들의 카페, 술집, 식당 등의 소규모 창업이 광주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긴 했지만, 그것이 청년들의 자생적 노력인 점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체법은 생각임을 책을 읽고 한참 후에 깨달았다. 그들은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에만 기대

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신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로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이다. 나는 그들이 서울의 기득권, 예를 들면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으로서의 진입에 실패한 ‘N포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당당히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는 ‘뉴 로컬 세대’라고 본다. 나는 그들 나이에 그들보다 더 많이 로컬을 고민해 본 적 없었고, 그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그들보다 더 로컬 커뮤니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청년 시기보다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잘 살고 있고, 미래에도 지금의 나보다 잘 살 것이다. 소상공인, 프로젝트 그룹, 도시 재생 기업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로컬 패러다임을 펼쳐 나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응원한다.

참언한다면, 시민들이 그들의 물건을 팔아 주고, 정부는 그들의 창업을 지원하며, 그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순환의 생태계가 되는 것은 결코 꿈만은 아니다. 미국 북서부 왼쪽 끝에 있는 포틀랜드시는 지방 정부의 지원과 로컬 크리에이터만의 힘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경제·문화적 생태계가 되었고, 강릉도 커피산업 하나만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한국의 포틀랜드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책화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자생적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

서울의 집값이 코로나와 투기꾼들에 의해 폭등되기 전에, 로컬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삶을 담은 ‘슬기로운 뉴 로컬 생활’(김동욱 외, 2020)이란 책이 기획되었다. 아직도 보통의 사람들은 로컬을 지방으로 일컫는다. 지방에서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드라마에서 따왔겠지만, 책 제목에 ‘슬기로운’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부제는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 탐구 보고서’. 이 책은 로컬 크리에이터나 그것을 지향하는 청춘들을 위한 책이다. 아홉 명의 필자가 참여한 이 책은 2020년의 시작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인터뷰해 기록한 책이다.

이미 청년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과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 확인하면 삶보다 자기만의 삶을 원한다는 것 말이다. 이 책에는 각 지역에서 1인 창업, 사회적 기업 설립, 주식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취향을 생업에 연결하고, 청년들의 로컬 정착을 도와주며, 지역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

無等鼓

최근 지구촌에서는 30대의 청년 또는 여성 대통령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지난 주 칠레에서는 좌파연립 ‘존엄성을 지지한다’의 후보로 출마한 가브리엘 보리치(35)가 극우 성향 후보인 안토니오 카스트(55)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에선 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이 39세에 대통령에 취임했고, 같은 해 뉴질랜드에서도 37세의 저신다 아던이 총리로 등극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2019년 산나 마린이 34살의 나이에 총리로 취임, 역대 최연소 총

청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MZ세대가 정치의 전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난 22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내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 영입에 공을 들이며 세대교체를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중 8곳을 여성·청년 경쟁 선거구로 확정했다. 전남도당은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귀농인파 이주여성 등 20·30대 청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임명했다.

청년 대통령

“30대 국가수반”은 유교적 질서가 아직까지도 몇 년 전부터 국내 정치 전반에 파리를 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탈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MZ세대(밀레니얼 세대: 20대 초반~30대 중반)가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도 “30대 국가수반” 탄생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울려서서는 국민의 힘에서 현정 사상 최초로 36세의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여야 대선 캠프에서도 20대 초반~30대 중반의

대 청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임명했다. 몇 년 전부터 국내 정치의 저변에서 불기 시작한 세대교체라는 변화의 바람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40세로 규정되어 있던 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은 아니다. ‘청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역동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2-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2-0632	222-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2-0663	222-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2-0652	222-0621	디자인실	220-0536
222-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